청문회 스타→대통령→피의자 신분으로

상고 출신 핸디캡 딛고 사시합격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 경선 1위
2004년 대통령 탄핵 시련 맞아

■ 파란의 정치인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생은 시련과 실패,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공을 일군 일종의 '신화'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또 한 번의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어려운 가정환경, 상고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딛고 사법고시에 합격, 성공 신화의 첫 단추를 채웠다.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순탄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1988년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또다시 성공의 길을 걸었다. '인권 변호사'라는 수식어를 달고 제도권 정치에 투신, 금배지를 단 것이다. 나아가 그해 5공 청문회에서 송곳 질문으로 증인들을 거침없이 몰아세움으로써 일약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90년 3당 합당 때 "역사적 반역"이라며 합류 권유를 뿌리친 이후 92년 총선 패배, 95년 부산시장 도전 실패, 96년 서울 종로 패배 등 정치적 실패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그는 2002년 대선 도전을 감행했다.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때만 해도 성공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내건 노 전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극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 후보가 됐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지지율 부침으로 후보 교체론의 대상이 되는 등 시련을 겪었으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정상에서도 시련은 계속됐다. 재신임 선언, 급기야 2004년 탄핵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비를 만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시련 속에서도 돌아가지 않았다. 도덕성을 무기로 내세우며 소신있는 정공법을 택했다.

대북송금 특검, 권력기관 중립화를 비롯한 권위주의 해체,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다는 부동산제도, 한미관계 재정립, 대연정 선언 등이 바로 그것.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은 같은 여권 내부에서까지 반발을 사는 등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퇴임 후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기존 전직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을 반대 정파에 넘겨준 전직 대통령의 뒷길은 험난했다. 퇴임 후 1년 만에 자신을 지탱해준 기둥인 '도덕성'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의 진실공방의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의 기반이 허물어진 셈이다.

이번 시련이 노 전 대통령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남길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아마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복 여부가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검찰 소환조사가 존경받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삶을 바랐던 그에게 치명적인 것은 사실이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칼날에 쓰러져갈지, 아니면 지난 20년의 정치 역정과 같이 오뚝이처럼 일어설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구내식당에 마련된 기자실에서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63세 소환·'포괄적 뇌물죄' 같아
조사실 1113호-1120호 서로 달라

■ 노태우-노무현 비교

1995년 11월1일 오전 9시45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 혐의로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그로부터 13년6개월이 지난 2009년 4월30일 오후 1시19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다녀갔던 대검찰청 청사를 다시 밟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다 곧바로 영장이 발부돼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됐던 점을 감안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찾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 셈이다.

이들 두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그다지 흔치 않은 '노(盧)' 씨라는 성(姓)을 가졌다는 점에서부터 닮은 점을 갖고 있다. 1932년에 태어난 노태우 전 대통령이 63세가 되던 해 검찰에 소환됐고 1946년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도 63세가 된 해 검찰에 소환된 점도 같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신축돼 자신이 재임 중 지은 건물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 조사실 수리 예산을 배정해 그가 퇴임한 뒤인 지난해 4월14일 특별조사실인 1120호를 만들었는데 친형 건평씨가 처음 조사를 받았고 노 전 대통령 자신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된 점도 엇비슷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당시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했는데 자신이 임명한 총장의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소환된 이유도 같은 점이 있다. 혐의도 똑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다시 말해 재임 중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포괄적 뇌물'이라는 점이다. 혐의를 모두 부인했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받은 조사실은 당시 'VIP룸'으로 통했던 1113호실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근 개조된 VIP룸인 1120호 특별조사실이다.

검찰 청사에 들어서기 전 남긴 말은 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채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와서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짤막한 말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면목없는 일이죠", "다음에 하시죠"라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MB 측근 '천신일 의혹' 규명 핵심

현역의원,정·관계 인사 수사도 박차 가할 듯

■ '박연차 게이트' 향후 수사 전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박연차 게이트 '2라운드' 수사가 막판으로 치닫자 이제는 향후 '3라운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전직 국회의장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찰·경찰 상대 로비 의혹 등이다.

◇'천신일 의혹'=3라운드 수사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천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밝히면서 "아무 혐의가 없는 사람을 출금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천 회장 관련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7월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것.

또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천 회장이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함께 포스코 정준양 현 회장 인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민주당 측에서 제기했다.

현 정권 실세인 박영준 국무차장과 천 회장이 이구택 포스코 회장에게 압력을 가해, 윤석만 사장이 아닌 정준양 당시 포스코 건설 사장이 포스코 차기 회장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 수사 박차=검찰은 지난 3월 박진, 서갑원 의원을 조사하는 등 현역 의원 수사에 박차를 가하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관련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임시국회가 없는 5월에 현역 의원 수사를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산·경남 출신 현역 의원 상당수가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전·현직 국회의원은 일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 시기에 상당수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정·관계 인사 수사=검찰은 지난달 초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박 회장이 '마당발 인맥'을 활용해 부산·경남 지역 전·현직 자치단체장에게 무차별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실제로 그동안 검찰에 구속된 인사 6명 가운데 절반이 지역 관료 출신이다.

따라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산·경남 지역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한나라 "구태정치 마침표 돼야"
민주당 "현정권 의혹도 조사를"

■ 정치권 반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해 여야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우선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한 채 최대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한 데다 섣부른 언급이 자칫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없다"며 아예 언급을 삼갔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대통령 퇴임 후 처벌이라는 악순환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아닌 국민에게 진술하는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이번이 마침표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검찰이 현 정권 인사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며 모든 진실이 규명되기 바란다"며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비롯해 여권 실세들에 대한 조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www.ins13.kr 반갑다! 친구야
• 일 시 :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생 앤 20년전 은사님 광주 인성고 총동문회 임원 이사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강천규 TEL : 011-614-0898 최성훈 TEL : 011-611-0442 송상훈 TEL :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림
홈페이지 www.inseong.or.kr
• 일 시 :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 장 소 :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1부행사 : 축구, 배구, 농구, 줄다리기, 400m계주
• 2부행사 : 요령가두공연, 각기두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 특별행사 : 가족대항게임, 행운권추첨, 어린이미술사생대회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 박 형 욱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사무실 연락처 062)603-3833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늦깍이 주부반모집실시 |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록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 향후 5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 원 {국가직 9급 2320명, 7급 800여명 공채 지방직 7·9급 일반직 약4000여명 공채
•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6일 시행 서울7·9급 행정7월19일, 기술직렬 8월17일예정
개 강 5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 정독실300여석! • 구내식당 • 인터넷정보실! • 지하주차장! • 맞춤식 학원공 최신시설! • 매월말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15%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탄 • 신 경찰 경찰학 기본 직강 • 남부 경찰학원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운 • 강의경력 22년 • 광주 순천 메인 전임 •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 꼭꼭 찍어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 FIRST최강 형법 직강 •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현중 • 사시 1차 3회 합격 •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 형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 226-5050

공인중개사 광주 박문각 공인중개사전문학원
직장인, 주부, 학생을 위한
국비환급 100%
▶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 박문각 교재, 동영상30%DC ▶ 출석부 관리, 숙제, 쪽지 시험 시행 ▶ 기출문제 풀이(수요일:민법, 목요일:개론, 오후 3시~5시)
본원만의 합격비법 전수
개강 5월1일(금)
"전국 최다,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529-8838
■ 위치:운암동 광암고가 옆 삼애신협 2층
■ BUS:37번, 65번, 89번, 98번
■ BUS:운암고가 입구(제2광천교) 26번, 38번, 47번, 64번, 51번
■ BUS:서강정보대 입구 18번, 58번, 63번
상무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거리